# 혐오 표현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이해

유은주\*

#### [요약]

혐오는 싫어함의 원초적 감정으로 완전한 배제나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혐오가 왜곡되어 극단적 폭력 현상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혐오 표현은 성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종적 혹은 민족적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와 권력이 결합되어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양산하는 폭력적 상황이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혐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혐오에 맞서는 방법을 한나 아렌트의 이해와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혐오 표현, 자유, 이해, 이야기하기, 누스바움, 아렌트

<sup>\*</sup> 숭실대학교

<sup>\*\*</sup> 이 글은 한국문화융합학회 하계전국학술대회(2018년 6월 2일)에서 발표된 "이해 와 이야기하기를 통한 혐오와 거리두기"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https://doi.org/[10.34162/hefins.2019..22.008]

### I. 자유에 위해를 가하는 혐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홀로 지내면서 모든 좋은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인간은 폴리스적이며 함께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혹은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politikon zōon"2)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집합적 존재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으로만 풀이되진 않는다. 근대 사회계약론에 기반하여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적 관계로서 인간과 폴리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상 폴리스적 삶과 인간적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폴리스적 삶이란 무엇인가? "모든 폴리스가어떤 종류의 공동체이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졸음을 위해서 구성"3)되는데, 인간들은 누구나 좋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좋은 삶은 곧 폴리스에서 사는 것이기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삶을 추구하게 됨을 가리킨다.

폴리스적 삶을 산다는 것은,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유의 실현이다. 그 본성에 있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노예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이다. 자유로운 시민의 삶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생존의 영역에 놓이지 않는다.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은 개인의 안정을 기반으로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생존의문제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다시

<sup>1)</sup>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역 (2006), p. 338.

<sup>2)</sup>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역 (2017), p. 33.

<sup>3)</sup>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역 (2017), pp. 29-30.

말해 개인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의 문제에 종속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관계에 구속되어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 공적 활동으로서의 정치는 자유가 구속되는 순간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자유의 실현은 곧 정치이다.

자유는 무엇인가?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해야 하며, 그 때 자유로운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의 행위에 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자유의기본 영역은 ① 내면적 의사의 영역(양심, 생각과 감정, 절대적인 의견과주장의 자유)②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③ 결사의 자유로 구분되며, 이 세 가지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며,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4)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실현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라는 조건이 제시된다. 다른사람과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자유를 즐기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의실현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법에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모든 사람들로부터비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5)

본성 상 폴리스에서 살아야 하는 집합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자유 일반을 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과의 삶은 관계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안에 놓인 인간은 스스로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때때로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제어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성적 사유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윤리의 가로축과 법의 세로축으로 촘촘하게 짜인 도표 위에 자신의 삶과 행위를 안착시키길 원한다. 하지만

<sup>4)</sup>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05), pp. 34-35.

<sup>5)</sup>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05), p. 33.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하거나 위해를 입히는 행위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서 출몰한다. 특히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언어가 주는 정신적 위해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보다 그 상처가 더 크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 후유증은 그 어떤 위해보다 심각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심각한 정신적 위해를 주는 것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혐오 표현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 늘 있어왔으나 사회적 혹은 공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었던 혐오 표현의 문제는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사건 이후, 논쟁의 중심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켰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 영역에 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혐오 표현의 문제는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혐오 그 자체가 발생하도록 만든 정신적 및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논쟁하기 보다 혐오에 혐오를 더하는 행위, 미러링, SNS 상에서 벌어지는 본질을 벗어난 혐오 논쟁 등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흥밋거리의 사건들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혐오 표현이 성적 영역에서 남녀의 대립과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남성과 적대적 관계에 위치시키고, 승패를 가르기 위해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혐오에 혐오를 부추기는 현재는 그 정도를 벗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마치 링 위에 올라선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쓰러질 때까지 규칙 없이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기에 온라인 매체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발화자나 대상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승자 없이 모두 패자가 되는 경기,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혐오 표현의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이 혐오 표현의 문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혐오를 불러일으 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시도보다 우선일 수는 없을 것이다.

혐오는 싫어함의 원초적 감정이다. 완전한 배제나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혐오가 왜곡되거나 극단적 폭력 현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인위적이다.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우선 마사 누스바움의 분석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알아보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혐오 표현의 문제가 단지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종적혹은 민족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그 관계에 내재한 권력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혐오 표현과 결합된 권력이 표출하는 폭력 앞에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혐오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제거될 수 없는 원초적 감정이기에 제거한다기보다는 이성적 사유를통한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나 아렌트의 이해와 이야기하기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 Ⅱ. 혐오 표현과 대상의 전이

개인적 자유나 사회적 자유에 위해를 가하는 이념이나 활동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 표현이다. 혐오는 어떤 것을 오염시키는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을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다. 혹은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제거하고자 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혐오에 담긴 핵심적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 혐오의 중심적 대상은 인간에게 오염 물질로 여겨지는 것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동물성과 유한성을 상기시킨다.이 인간은

동물의 사체나 부패한 것들을 보면 질겁하고 뒷걸음질 친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임에도 배설물을 더럽다고 여긴다. 혹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것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지거나 제거해버린다. 이러한 행동들, 다시 말해서 원초적으로 기피하고 싫어하며 자신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하는 혐오의 대상에 대해 인간이 취하는 행동들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발화자가 갖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거나 폭력을 사용한다면 기본권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 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혐오의 대상(혹은 발화의 대상)이 원초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전이되었을 때, 또는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다수의 집단으로 확장되었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 감정의 자연스런 표출이 1차적 혐오라면, 이성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었 을 경우기, 이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폭력적 행동으로 전환된다. 누스바움은 이를 '투사적 혐오'라 이름 짓는데, 자신과 다르거나 배제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나 집단에게 왜곡된 형태로 혐오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신적 위해를 가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을 통해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강남역 사건은 그 혐오가 감정이나 발화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폭력으로 나타난 범죄다.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가할 위험성이 분명하다면,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8) 이에 근거하여 혐오 표현이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사회적 해악까지 거론할 수준이 아니라면 법이 개입할

<sup>6)</sup> 누스바움, 조계원 역 (2015), pp. 185-186.

<sup>7)</sup> 누스바움, 장동혁 역 (2016), p. 55. 예를 들어 인도의 불가촉천민이나 구강성교 를 하는 동성애 집단으로의 확장

<sup>8)</sup> 존 스튜어트 밀, 서병훈 역 (2005), p. 153.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9 하지만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그 행동을 도덕이나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 또한 당연하다.

위법이나 부도덕의 영역에 놓인 혐오 표현의 대상은 그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우연에 따라 결정된 불변하는 것, 즉 불변성을 갖는다. 이는 혐오의 대상이 된 객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불변의 것이다.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없기에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어렵다. 문제는 불변적 성향을 가진 대상으로 의 전이다. 차별의 근거나 되는 어떤 속성의 불변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편견에 좌우된 나머지 아무 상관도 없는 목적에 적용된다는 사실, 즉 무관성無關性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10) 편격이나 고정 관념에 의거한 혐오는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열등하게 하거나 불온한 존재로 보는 것, 즉 존재 자체에 대한 경멸이다.!!) 면역결핍바이러스인 에이즈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질병은 동성애자들 무리에 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질병에 대한 기피와 두려움이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 혐오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폭력이 정당화되는 근거가 되었으며, 소수자와 일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논거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12)

<sup>9)</sup> 이상경 (2015), pp. 197-239 참고.

<sup>10)</sup> 누스바움, 장동혁 역 (2016), pp. 177-178 참고.

<sup>11)</sup> 홍재희 (2017), p. 166.

<sup>12)</sup> 홍성수 (2015), pp. 290-292 참고.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적 지향성, 정치적 지향성, 국적, 민족, 피부색, 성별 등 행위자가 평소에 가진 선입견에 근거하여 공격하는 것이며, 선동적, 모욕적, 조롱하는, 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1997년 유럽 평의회 각료 위원회의 권고 제20호", http://rm.coe.int/168059bfce. "인종적 적대감,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그리고 불관용에 기한 적대감을 확산, 선동, 증진,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으로, 이 때 불관용이란 공격적인 민주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

강남역 사건을 '묻지마 살인'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성차별에 의한 잠재적 혐오 감정의 극단적 표출로 보고 혐오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의 중심에 소수자<sup>13)</sup>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이 놓여 있다. 소수자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호모 사케르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제하고 싶으나 배제할 수 없는 이들에게 혐오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혐오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과시하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당성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혐오는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싶은 대상들에 대한 극단적인 감정 표현이며 폭력의 노골적인합리화다.

혐오 표현은 그 기저에 차별과 배제, 제거의 논리가 남아 있지만 그 대상의 다양성과 왜곡된 내용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인종주의적 및 민족적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혐오 사례로 20세기의 제노사이 드,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조선인 학살을 들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게르만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당시 1차세계대전이후 패전국으로 전략되어 사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이 가득했던 독일 사회에서 민족성을 내세운 연대 의식을 강화하여 국민들을 유효하게 통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의 적을 내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그에 적합한 이들이 바로 성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었으며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다. '독일 내에서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들에게 있어 유대인 학살의 잔혹함은 말 그대로 최종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 이주민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한다."

<sup>13) 1977</sup>년 소수자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소수자란 ①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으로 ② 비지배적인 입장에 있으며 ③ 해당국 국민이지만 ④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⑤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연대의식을 보이는 자들로 규정한다.

로 1923년 9월 최대 진도 7의 대지진이 간토 일대를 덮침으로써 발생했던 관동대지진은, 자연재해와는 무관한 조선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기면서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이어졌다. '조선인은 열등하고 더러워서 무섭다'라든가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에 넘어가 군인과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자경단을 만들어 조선인 학살에 가담하였다고 한다.14)

더구나 관동대지진 때만이 아니라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 정책은 점차 심화되었으며, 이를 입증하는 폭력적 행동도 지속되었다고 한다. 조선인 고등학교를 습격하거나 치마저고리를 입고 등교하는 여학생의 옷을 찢는 등의 사건은 단지 개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아니라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혐오 표현이 집단적 폭력으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보통 사람들이 힘이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벌인 이런 일들은 조직적인 범죄보다 무서운 자연발생적이고 일상적인 폭력 이다.15) 이러한 폭력은 폭력의 가해자조차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나기 쉽다. 이들의 폭력은 조작된 사회적 흐름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며 나온 행동은 폭력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 나아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한다. 방울소리에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들은 한편으 로는 폭력의 가해자로서 지탄받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 역시 국가의 조작된 통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피해자가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혐오 표현이 역사적으로 축적된 반민족적 감정의 촉발과 더불어 일어났다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치하 도록 이데올로기적 세뇌 학습에 의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16) 결국 식민지

<sup>14)</sup>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이혜진 역 (2015), pp. 8-9 참고.

<sup>15)</sup> 량영성, 김선미 역 (2018) 참고.

<sup>16)</sup> 카를린 엠케, 정지인 역 (2017), p. 23. "혐오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이것이 분출되려면 미리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다. 모욕적인 언

지배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서의 차별 정책이 사회적 보호막이 없는 대상을 향해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그러한 행동들의 맹목적 정당화가 편견이나 고정 관념화 되면서 모두의 의식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작위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의식을 기반으로 한 언어 표현과 이미지의 형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17)

한편 혐오 표현의 문제는 다른 영역들에 비해 성/젠더 영역에서 좀 더선명하게 나타난다.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구강성교에 대한 원초적 혐오 감정이, 성적 행위에 대한 싫어함을 넘어서 동성애 혐오의 방향으로 확장된다. 호모포비니즘은 그들로 인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촉발되었다. 유대인과 함께 동성애자들의 학살을 자행하였던 나치나 스톤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경찰의 행동은 원초적 혐오 감정이 성적 소수자 집단의배제라는 정치적 이념과 결합하면서 나타난 왜곡된 감정의 표출일 뿐이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에 있음 자체가 다른 성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해를 입히는 것이라 왜곡시키고, 그로부터 그들의 존재 자체를 파기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관한 불변적성향은 제거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며 그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다.

이것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혐오 표현의 문제가 이전과는 달리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담론 안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서

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 틀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혐오와 증오는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

<sup>17)</sup> 조너선 글로버, 김선욱·이양수 역 (2008), pp. 190-196 참고. 이런 경우는 1990년 대 르완다에서 일어난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의 대량학살에서도 나타난다. 외세의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투치족은 후투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으며, 이러한 후투족의 분노의 유산은 지속적인 학살로 이어졌다. 물론 두 종족 간에 해묵은 증오의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량학살로 돌변할 만큼의 자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서방 열강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찾아 볼 수 있다. 불결함을 피하기 위한 원초적 감정이 무관한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생겨나는 왜곡된 감정의 표현, 혹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서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여성들을 그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삼아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행위는 지배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한 남성들의 자기 방어 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장되고 경제적 영역에서 자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남성 의 권위와 역할이 위축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빈약했던 이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이 생각한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순종적인 여성, 현모양처를 꿈꾸는 착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자신들의 질서를 위배하 지 않는 여성이었다. 그들은 그저 보호해주어야 할 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사회는 변화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여성의 정치적 및 사회적 역할의 범위는 확장되었다.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여성들을 억압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다. 남성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현모양처를 꿈꾸지 않는 여자,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능력 있는 여자, 이들 모두가 혐오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성 혐오가 무조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통치가 어려워진 시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식으로 여성을 근본적 악으로 여기며 적대시하는 경향들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에 나타난 마녀사냥을 들 수 있다. 반종교적이고 미신을 숭배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이해되는 마녀사냥(혹은 마녀재판)은 단지 종교적 차원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균형이가져온 문제를 해소하려는 자본주의적 정치의 기획물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토지 상실과 그로 인한 마을 공동체의 해체로 권위를 상실한 남성이 여성혐오라는 방식으로 폭력을 노출시킨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혼란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는 오히려 여성이었다.18) 남성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이성적이고 허영심이 강하며 난폭하고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받으며 마녀나 창녀와 더불어 도덕가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 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지배자들의 필연적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페데리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녀사냥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었으며, 여성을 비하하고 악마화하며 사회적 권력을 파괴하려는 집단적 시도였다.19)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권력과 권위를 보호할 수 있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필요성과 맞물려 벌어졌던 마녀사냥은 지금 이 순간 여성 혐오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여성 혐오가 묻지마 혐오, 혹은 맹목적 혐오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확장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 상에서 벌어지는 과열된 논쟁들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 고 혐오에 혐오를 더하고 있다. 이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혐오 표현의 대상화로 나타난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궁으로 몰아간다. 지금 우리는 혐오의 혼돈 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 Ⅲ. 혐오 표현의 권력과 폭력성

잘 알려진 동화 <백설 공주>에서 왕비는 백설 공주를 혐오하여 독 사과로 죽이려 한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하는데, 백설 공주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만약 왕비가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혹은 백설 공주가 아름답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죽고 죽이는 관계는

<sup>18)</sup>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2011), pp. 118-119 참고.

<sup>19)</sup>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2011), p. 275, p. 288.

<sup>&</sup>quot;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비난했던 마녀사냥은, 새로운 자본 주의적 노동규율에 순응하여 가족 내에서의 재산상속과 출산을 위협하거나, 노동 에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게 만드는 모든 성적 활동을 범죄화 하는 광범위한 성생활의 재구조화를 위한 주요 수단이기도 했다."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백설 공주를 혐오한 못된 왕비는 독 사과를 주었고, 착한 공주는 그런 줄 모른 채 먹는다. 공주의 아름다움에 질투하며 혐오하는 왕비, 그리고 그 왕비가 준 독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주,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즉 정치적이고 권력적이 며 수직적이다. 공주는 착해서가 아니라 분노하거나 저항할 정치적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이기 때문에 왕비의 폭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성에서 쫓겨난 공주는 왕비의 계략을 몰랐을 리 없고, 왕비에 저항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주는 독 사과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혐오는 약자의 감정이 아니라 강자의 감정이다. 열등감과 패배감의 표출이 아니라 우월감과 자만심의 표출이다. 20) 약자인 백설 공주가 강자인 왕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음이다. 하지만 동화의 결론에서 권력 관계는 역전된다. 일곱 난쟁이와 왕자의 등장은 공주로 하여금 왕비와 동등한 위치에설 수 있는 강자의 권력을 갖도록 만든다. 왕비가 죽고 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살았다는 결말은 왕비가 가졌던 혐오 감정을 상쇄할 만큼의 권력을 공주가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저항의 권력이 온전히 공주의 것이었을까? 왕비의 죽음은 1차적으로 혐오 표현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의 주종 관계를왕비-공주에서 공주-왕비로 전환시켰다. 문제는 2차적인 것에 있다. 공주의권력은 혐오 표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아니라외부적 힘, 그것도 남성 권력에 의한 것이다. 동화 <백설 공주>의 결말이 '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기대는현재의 시선으로 볼 때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여기에 새로운 권력 관계,즉 공주와 왕자, 혹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권력 관계가 남기 때문이다.

혐오는 불결한 것을 피하고 싶은 원초적 감정이다. 이때의 표현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이다. 하지만 개별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사회의 질서나

<sup>20)</sup> 김종갑 (2017), p. 167.

권위를 유지하는 권력과 결탁하여 투사될 경우 그 표현은 올바르지 않은 감정의 분출로 전환된다. 도덕적 및 윤리적 영역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혐오 감정을 놓는 것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폭력적 행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살수 없는 집합적 인간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개인적 이익이나 생존을 위한 사적 영역과 생활과 정치라는 공적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 그런 점에서 혐오는 강자와 다수의 특권적 감정이다. 혹은 스스로 약자이면서 강자와 상징적으로 동일시하고픈 사람들의 지극히 배타적인 감정이다.<sup>21)</sup>

또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월한 통치를 위해 선택된 정의롭지 않은 수단이다. 혐오 대상은 강자들의 연대, 혹은 약자들이 그 연대에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할 것으로 확정짓는 것, 그리고 그 제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동의 대상을 향한일방적인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회의 일원이며 제거되지 않을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야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혐오 표현이다. 그 선택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나아가 투사된 혐오 대상을 폭력으로 끌어들인다. 다른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을 기반으로 자신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강자가 지닌혐오 표현이다. 동화 <백설 공주>에서 이 힘을 처음에는 왕비가 가졌으나결말에는 공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혐오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 관계로 옮겨간다. 쓰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이 동화의 마지막, 왕자와 공주 혹은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로 말이다.

사람들은 어떤 것도 혐오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혐오되지 않는 삶을 꿈꾼다. 누군가를 혐오한다거나 누군가로부터 혐오 대상이 된다는

<sup>21)</sup> 김종갑 (2017). p. 193.

것은 일상적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 또한 구속됨을 의미한다. 구속적인 삶은 노예적 삶이며, 자유롭지 못한 삶이며, 인간답지 못한 삶이다.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본래 혐오란 자신에게 해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적 혐오가전혀 무관한 대상으로 전이되는 현재의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어찌할수 없음과 상관없음으로 무장한 혐오 표현은 이유 없이 인간다움 그 자체를 공격하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은 혐오 표현의 폭력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함으로써 자신의혐오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 행위에 합당한 이유는 없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혐오, 특히 여성 혐오를 확장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기형적인 여성 혐오 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비가시적인형태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가하고 있다. 비가시적 폭력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는 소셜 네트워크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소속된 집단의가치에 따라 구성원들로부터 확인되고 응답받는다. 더구나 편향된 내용으로더욱 극화되는 경향을 갖기도 한다.22) 일간베스트나 메갈리아/워마드 논쟁들은 한편으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사실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곡된 논쟁을 통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허구적표현이기도 하다.

현실 공간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의 주체, 즉 유저들은 현실과는 다른 윤리적 감각과 판단 기준을 가진다. 가해자로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익명성과 현실적으로 실현되어 직접적인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일종의 사이버 공간상의 안도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간 분쟁에서 이루어진 막말에 대해 누구도 일말의 죄의식을 내비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

<sup>22)</sup> 김수아 (2015), pp. 25-29 참고.

벌어지는 혐오 논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각적이고 반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원시부족들이 전쟁을 놀이로 의례화한 것처럼 사이버 공간은 놀이터로, 혐오 논쟁은 즐거운(?) 수다로 여긴다는 것이다.<sup>23)</sup>이 과정에서 언어를 도구로 삼는 혐오 표현이라는 비가시적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여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서로가서로를 혐오하면서 서로에게 해를 가하고 해를 입는 관계에 놓인다. 결국모두가 비가시적 폭력의 형태인 혐오 표현의 희생자임을 보여줄 뿐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왜곡된 인식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는 혐오 표현은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특히여성 혐오는 남성에게 여성 멸시를, 여성에게 자기혐오를 주입시킨다. 가부장제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기득권을 쥐고 있는 남성 역시 피해자이다. 차별과 배제로 억압당하는 여성과, 불안과 강박 탓에 분열하는 남성은혐오에 있어 똑같은 희생자일 뿐이다. 24)이 과정에서 혐오를 하는 사람이나혐오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생각과 행위에 있어 일종의 족쇄를 차게 된다.혐오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보다 오히려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혐오 당하는 사람은 그 행위로부터 벗어나기위해 생활의 제약을 가하게 된다.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만다.이제혐오 표현은 누구 탓도 아닌 모두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 Ⅳ. 혐오에 맞서다: 이해와 이야기하기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과 이해를 기반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물론 사람들이 가진 성향이

<sup>23)</sup> 박가분 (2016), p. 155 참고.

<sup>24)</sup> 홍재희 (2017), p. 46.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싫어한다. 누군가 싫다고 해서 자신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다름이 이 세계에서 내가 '나'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며, 서로 다른 '나'임의 다양성으로 세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름으로부터 우리는 '나'다움으로, 인간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싫다는 이유로, 혹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원초적 혐오 감정만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극단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혐오 표현은 혐오를 하는 사람이나 혐오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갖도록 만든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박탈당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혐오 표현은 비-자유 혹은 무-자유의 상태이다.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것은 박탈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다.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것은 자유의 실현이며, 자유의 실현은 정치다.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이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혐오를 하는 사람이나 혐오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혐오 감정은 극단적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왜곡된 형태가 아닌 원초적이고 가벼운 감정적 표현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름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해야 할 것인가? 인정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하다. 이해는 무조건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해는 터무니없는 것을 거부하거나, 선례로부터 전례가 없는 것을 도출한다거나, 혹은 현실의 영향과경험의 충격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유비와 일반성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세기가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의식적으로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 간단히 말해서 미리 생각해 두지 않은 것, 즉 그것이무엇이든지 간에 현실에 조심스레 부딪치고 저항하는 것이다."25) 그럴 수도 있다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할 것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해다. 이를 위해서는 선입견이 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위치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알아가야 한다.

불편부당함impartialit의 관점은 사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내외부적 강압에 의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관점을 취하는 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의 확장enlargement of the mind'이 필요하다. '정신의 확장'은 자신이 가진 생각에 어떤 것을 보태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상상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26)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재구성한다면 사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맞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는 주어진 자료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여 현재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함이다. 따라서 이해는 분명한 결과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변종 속에서, 우리 자신이 현실과 관계를 맺고 화해하도록 만드는 끝없는 활동이다.27) 혐오를 하는 사람과 혐오 당하는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구태의연한 대안일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인 노력이다. 혐오를 하는 사람도 혐오를 당하는 사람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침묵은 서로를 더욱 혐오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든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이해 역시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표현되었을 때 분명해진다. 이해는 언어적 활동을 수반한다.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sup>25)</sup>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역 (2006), pp. 33-34 참고.

<sup>26)</sup> 한나 아렌트, 홍원표 외 역 (2012), p. 341.

<sup>27)</sup> 한나 아렌트, 김선욱 역 (2007), pp. 307-308 참고.

나눔으로써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잘 꾸며진 이론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현실의 힘을 반영한 일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보편적 설득력을 가진 자격을 갖는다. 구체적인 현실의 힘을 반영하면서도 보편적 설득력을 가질 자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야기는 구체와 보편의 양측면의 힘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어떤 이론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28)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함에 있어 이야기하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감 없는 이해는 오만한 해석이 되기 쉽고, 이해 없는 공감은 극단으로 치우치기 쉽다.29) 서로 이야기하기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며, 인정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조건이긴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 모두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하는 폭력적 행위보다는 언어를 매개로 한 혐오 발언으로 정신에 가해지는 폭력적 행위로 많이 나타난다. 가시적인 폭력이 아니기에 누구나 쉽게 내뱉는 혐오 발언이야말로 지독한 후유증을 낳는 폭력이다. 혐오 표현은 다수가 소수를, 권력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가하는 강제이다. 이야기할 권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권력을 가진 이들은 혐오하는 자들이다. 혐오를 당하는 이들은 이야기할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약자이거나 소수자이다. 사회의 구성 원이면서도 그 권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권력적 약자인 그들이 혐오 발언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들을 더욱 더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혐오 발언은 권력적 약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가 있다. 권력적 약자들은 자괴감과 무력감 탓에 변론할 말을 잃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고 변론을 제기하면 오히려 새로운 공격을 유발하는 표적이 되어 버린다. 이

<sup>28)</sup> 김선욱 (2015), p. 195.

<sup>29)</sup> 홍재희 (2017), p. 12.

때문에 권력적 약자는 피해를 호소하거나 반론하기를 두려워한다.<sup>30)</sup> 혐오 발언은 발언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소통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폭력적 행위 이다.

혐오 표현에 맞서기 위해서는 확장된 정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이야기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하기는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였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도 하다. 말하기와 듣기의 반복적 자리바꿈을 통해 서로의 있음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이야기하기에서 (강제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은 세계 내에 없음과 동일하다. 없음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 없음은 나에게로, 그리고 세계로 전이되어 모든 것의 없음이 될 수도 있다. 세계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며 살기에 그 의미를 갖는다. 세계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귀를 열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sup>30)</sup>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 이혜진 역 (2015), p. 95.

#### 참고문헌

김선욱 (2015), 『아모르문디에서 레스 푸블리카로』, 서울: 아포리아

김종갑 (2017), 『혐오, 감정의 정치학』, 서울: 은행나무

이상경 (2015),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197-239.

박가분 (2016), 『혐오의 미러링』, 서울: 바다출판사

홍재희 (2017), 『그건 혐오예요』, 서울: 황성B잎새

김수아 (2015), 「한국 온라인 공간과 여성혐오 정서」, 『젠더리뷰』, 가을호: pp .23-33.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법과사회』, 50호: pp.287-336.

량영성 (2016), 김선미 역 (2018), 『혐오표현은 왜 재일조선인을 겨냥하는가』, 서울: 산처럼.

마사 C. 누스바움 (2006), 조계원 역 (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마사 C. 누스바움 (2010), 장동혁 역 (2016), 『혐오에서 인류애로』, 서울: 뿌리와이파리.

모로오카 야스코 (2013), 조승미, 이혜진 역 (2015), 『증오하는 입』, 파주: 오월의 봄.

실비아 페데리치 (2004), 황성원, 김민철 역 (2011), 『캘리번과 마녀』, 서울: 갈무리.

아리스토텔레스 (1894),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역 (2017), 『정치학』, 서울: 길.

조너선 글로버 (1999), 김선욱, 이양수 역 (2008), 『휴머니티』, 서울: 문예출판사.

존 스튜어트 밀 (1982), 서병훈 역 (2005) 『자유론』, 서울: 책세상.

카를린 엠케 (2016), 정지인 역 (2017), 『혐오 사회』, 파주: 다산북스.

한나 아렌트 (1968), 이진우, 태정호 역 (2006), 『전체주의의 기원』, 파주: 한길사.

한나 아렌트 (2005), 김선욱 역 (2007), 『정치의 약속』, 파주: 푸른숲.

한나 아렌트 (1994), 홍원표 외 역 (2012), 『이해의 에세이』, 서울: 텍스트.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 No.R(97)20 Of the Ministers to Memb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https://rm.coe.int/168059bfce. (검색일: 2019. 03.02.)

#### Abstract

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 eliminate or abolish the disgust with the primal feelings of dislike. However, the disgust should not be distorted and turned into extreme violence. The current expression of the disgust is manifest in racial or ethnic as well as sexual domains. The violent situation in which abhorrence and power combine to produce victims without the perpetrator continues.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we try to find out what aversion is. So I will try to find out the understanding and story-telling of Hannah Arendt in various cases.

[Keywords] Expression of Disgust, Freedom, Understand, Story-Telling, Nussbaum, Arendt

논문 투고일: 2019. 03. 05

심사 완료일: 2019. 04. 12

게재 확정일: 2019. 04. 12